갑민가(甲民歌)[1] 역주

1792년 成大中(1732-1812) 작

[생원]

어져 어져 저긔가는 저 ᄉᆞ롬ᄋᆞ

-아아(어어) 저기 가는 저 사람아

네 힝ᄉᆡᆨ(行色) 보아니 군ᄉᆞ도망(軍士逃亡) 네로구나

-네 행색을 보아하니 군사도망 너로구나

뇨상(腰上)으로 볼족시면 뵈젹숨이 깃몬남고

-허리위로 봄직 하면 베적삼이 깃만 남고

허리아릐 구버보니 헌즘방이[2] 노닥노닥

-허리아래 굽어보니 헌 잠방이 노닥노닥

곱장할미 압희가고 전 ᄐᆡ발이[3] 뒤예간ᄃᆞ

-굽은 할미 앞에 가고 절뚝이는 늙은이는 뒤에 간다

십니(十里)길을 할ᄂᆡ[4]가니 몃니가셔 업쳐디리

-십리 길을 하루에 가니 몇 리 가서 엎어지리

내고을의 양반(兩班)사람 ᄐᆞ도ᄐᆞ관[5](他道他關) 온겨살면

-내 고을의 양반사람 타도타관 옮겨 살면

쳔(賤)이되기 상ᄉᆞ여든 본토군정[6](本土軍丁)슬타ᄒᆞ고

-천하게 되기 예사거든 본토군정 싫다하고

ᄌᆞ니ᄯᅩ한 도망(逃亡)ᄒᆞ면 일국일토(一國一土) ᄒᆞᆫ인심(人心)의

-자네 또한 도망가면 일국일토 다 같은 인심에

근본(根本)슘겨 살녀ᄒᆞᆫ들 어ᄃᆡ간ᄃᆞᆯ 면ᄒᆞᆯ손가

-근본 숨겨 살려한들 어디 간들 면할 것인가

ᄎᆞ라리 네ᄉᆞ던곳의 아모케나 ᄲᅪᆯ희박여

-차라리 네 살던 곳에 아무렇게나 뿌리 박혀

칠팔월(七八月)의 치숨(採蔘)ᄒᆞ고 구십월(九十月)의 돈피[7](獤皮)잡아

-칠 팔월에 삼을 캐고 구시월에 담비 가죽 잡아

공치신역[8](公債身役) 갑흔후의 그남저지 두엇ᄃᆞᄀᆞ

---

1) 林基中 編,『歷代歌辭文學全集』6 (東西文化社, 1987) pp.5~17.
2) 잠방이: 가랑이가 짧은 홑 고의
3) 태발이: 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. 태배(鮐背)
4) 할ᄂᆡ: 하루에
5) 타도타관: 다른 도와 다른 고을
6) 군정: 군적이 있는 지방의 장정. 공역에 종사하는 장정
7) 돈피: 담비의 가죽
8) 공채: 국가에 내는 세금
   신역: 몸으로 치르는 노역

-공채 신역 갚은 후에 그 나머지 두었다가
함흥북청(咸興北靑) 홍원(洪原)[9]장ᄉᆞ 도라드러 줌ᄆᆡ[10](潛賣)ᄒᆞᆯ제
-함흥북청 홍원 장사에 돌아들어 잠매할제
후ᄀᆞ[11](厚價)밧고 파ᄅᆞ니여 살기됴흔 너른곳의
-후한 값 받고 팔아서 살기 좋은 넓은 곳에
가ᄉᆞ뎐토(家舍田土)곳처ᄉᆞ고 가장즙물[12](家藏什物) 장만하여
-집과 밭 고쳐서 사고 가장집물 장만하여
부모처ᄌᆞ(父母妻子)보전(保全)ᄒᆞ고 새즐거물 누리려문[13]
-부모처자 보전하고 새 즐거움을 누리려므나

[갑민]
어와 ᄉᆡᆼ원(生員)인디 초관[14](哨官)인지
-아아, 생원인지 초관인지
그ᄃᆡ말ᄉᆞᆷ 그만두고 이ᄂᆡ말ᄉᆞᆷ 드러보소
-그대 말씀 그만두고 이 내 말을 들어보소
이ᄂᆡᄯᅩᄒᆞᆫ 갑민(甲民)이라
-이 내 또한 갑민이라
이ᄯᅡ의셔 ᄉᆡᆼ장(生長)ᄒᆞ니 이ᄯᅥ일을 모를소냐
-이 땅에서 성장하니 이 땅 일을 모를쏘냐
우리조상 남중양반(南中兩班) 딘ᄉᆞ급뎨(進士及第) 연면[15](連綿)ᄒᆞ여
-우리조상 남중양반 진사급제 끊이지 않아
금댱옥픠(金章玉佩) 빗기ᄎᆞ고 시종신[16](侍從臣)을 ᄃᆞ니다가
-금장옥패 빗겨 차고 시종신을 다니다가
싀긔인(猜忌人)의 참소입어 전가ᄉᆞ변[17](全家徙邊) ᄒᆞ온후의
-시기한 이의 참소를 입어 집안이 변방으로 귀양한 후에
국ᄂᆡ극변(國內極邊) 이ᄯᅡ의셔 칠팔ᄃᆡ(七八代)을 ᄉᆞᄅᆞ오니
-나라의 맨 끝 변방 이 땅에서 칠 팔월을 살아오니
선음(先蔭)[18]이어 ᄒᆞ난일이 읍듕(邑中)구실 첫ᄌᆡ로ᄃᆞ
-선조의 숨은 은덕을 이어하는 일이 읍중구실 첫째로다
드러ᄀᆞ면 좌수별감(座首別監)[19] 나ᄀᆞ셔ᄂᆞᆫ 풍헌감관[20](風憲監官)

---

9) 홍원: 넓고 큰 들판
10) 잠매: 매매가 금지된 물건을 몰래 팖 (暗賣)
11) 후가: 후한 가격
12) 가장집물: 집안의 온갖 세간
13) 누리려문: 누리려무나
14) 초관: 보초서는 사람
15) 연면: 오래 연이어서 끊이지 않음
16) 시종신: 시종원의 한 벼슬. 왕 옆에서 어복(御服)과 어물(御物)을 나누어 맡던 직분
17) 전가사변: 온 집안을 변방으로 귀양보냄
18) 선음: 조상의 숨은 은덕
19) 좌수별감: 향청의 좌수 버금자리
20) 풍헌감관: 향소에서 돈이나 곡식을 간수하고 출납을 맡아보던 자리

-들어가면 좌수별감 나가서는 풍헌감관
유ᄉᆞ장의(有司掌儀) ᄎᆞ지ᄂᆞ면 톄면보와 ᄉᆞ양터니
-유사장의 지나지 않으면 체면 보아 사양터니
애슬푸다 내 시절의 원슈인(怨讐人)의 모히(謀害)[21]로서
-애슬프다 내 시절에 원수의 모해로서
군ᄉᆞ강졍(軍士降定)[22] 되단말ᄀᆞ 내ᄒᆞᆫ몸이 허러나니
-군사로 강등되었단 말인가 내 한 몸이 헐어나니
좌우전후(左右前後) 수ᄃᆞ일ᄀᆞ(數多一家) ᄎᆞᄎᆞ츙군[23](次次充軍) 되거고야
-좌우전후 많은 집안 차츰차츰 군역을 채웠구나
누ᄃᆡ봉ᄉᆞ[24](累代奉祀) 이ᄂᆡ몸은 ᄒᆞᆯ일업시 ᄆᆡ와잇고
-누대봉사 이내몸은 할 일없이 매어있고
시름업슨 졔독[25]인(諸族人)은 ᄌᆞ쵀업시 도망(逃亡)ᄒᆞ고
-시름없는 제족인은 자취 없이 도망가고
여라ᄉᆞ롬 모든신역(身役) 내ᄒᆞᆫ몸의 모도무니
-여러 사람 모든 노역 내 한 몸에 모두 물어내니
ᄒᆞᆫ몸신역(身役) 숨양오전(三兩五錢) 돈피이장(獤皮二張) 의법[26](依法)이라
-한 몸 노역 삼냥 오전 돈피 이장이 의법 이라
십이인명(十二人名) 업ᄂᆞᆫ구실 합(合)처보면 ᄉᆞ십뉵양(四十六兩)
-열 두명 없는 구실 합쳐보면 사십육냥
연부연(年復年)의 맛ᄐᆞ무니 석슝[27](石崇)인들 당(當)ᄒᆞᆯ소냐
-해마다 맞추어 물어내니 석숭인들 당할쏘냐
약간농ᄉᆞ 전폐(全廢)ᄒᆞ고 치숨(採蔘)ᄒᆞ려 닙ᄉᆞᆫ(入山)ᄒᆞ여
-약간농사 전폐하고 삼 캐러 입산하여
허항영(虛項嶺) 보틱ᄉᆞᆫ(寶泰山)을 돌고돌아 ᄎᆞᄌᆞ보니
-허항령 보태산을 돌고 돌아 찾아보니
인숨(人蔘) 싹슨 전혀업고 오ᄀᆞ(五加) 닙히 날소긴다
-인삼 싹은 전혀 없고 오갈피 잎이 날 속인다
ᄒᆞᆯ일업시 공반(空返)ᄒᆞ여 팔구월(八九月) 고추바람[28]
-할 수 없이 빈손으로 되돌아와 팔 구월 고추바람
안고도라 입ᄉᆞᆫ(入山)ᄒᆞ여 돈피ᄉᆞᆫ힝(獤皮山行) ᄒᆞ랴하고
-안고 돌아 입산하여 돈피산행 하려하고

※여기서는 벼슬을 샜던 것을 나타내기 위해 좌수별감과 함께 열거한 것임
21) 모해: 모략을 써서 남을 해롭게 함
22) 군사강정: 군사의 계급으로 강등됨
23) 충군: 모자란 군역을 채움
24) 누대봉사: 여러 대의 신주의 제사를 받듦
25) 제족: 일문의 여러 겨레붙이
26) 의법 :법에 따름
27) 석숭: 중국 晋나라 때의 부자
28) 고추바람: 살을 에는 듯한 바람

빅두손(白頭山) 등의디고 분계강ᄒᆞ(分界江下) 나려가셔
-백두산 등에 지고 경계의 강 아래로 내려가서
살이썻거 누ᄃᆡ치고 익갈나무[29] 우등놉고
-싸리 꺽어 누대 치고 이깔나무 우등 놓고
ᄒᆞᄂᆞ님께 츅수ᄒᆞ며 손신(山神)님께 발원[30]ᄒᆞ여
-하나님께 축수(祝手)하며 산신님께 발원하여
물치출을 ᄀᆞᆺ초곳고 ᄉᆞ망[31]일기 원망ᄒᆞ되
-물 채 줄을 갖추어 꽂아놓고 사망하기 원하고 바라되
닉뎡성(精誠)이 불급(不及)ᄒᆞᆫ디 ᄉᆞ망실이 아니붓닉
-내 정성이 미치지 못하는지 사망함이 붙지 않네
뷘손으로 도라서니 숨디연(三池淵)이 잘참이라
-빈손으로 돌아서니 삼지연이 잘 참이라
닙동(立冬)지ᄂᆞᆫ 숨일후(三日後)의 일야설(一夜雪)이 ᄉᆞ못오니
-입동 지난 삼일 후에 일야설이 사뭇 오니
대ᄌᆞ깁희 ᄒᆞ마[32]너머 ᄉᆞ오보(四五步)를 못옴길네
-다섯 자 깊이 이미 넘어 네 다섯 보를 못 옮기네
양딘(糧盡)ᄒᆞ고 의박(衣薄)ᄒᆞ니 압희근심 다 쩔티고
-식량이 다하고 의복이 얇으니 앞에 근심을 다 떨치고
목슘술려 욕심ᄒᆞ여 디ᄉᆞ위ᄒᆞᆫ[33](至死爲限) 길을허여
-목숨을 살려 욕심 내어 지사위한 길을 헤아려
인가처(人家處)를 ᄎᆞᄌᆞ오니 검천거이(劍川巨里) 첫목이라
-인가가 있는 곳을 찾아오니 검천거리 첫눈에 보인다
계초명(鷄初鳴)이 이윽ᄒᆞ고 인ᄀᆞ적적(人家寂寂) ᄒᆞᆫ줌일네
-첫 닭 울음소리 이윽하고 인가가 적적한 것이 아직 잠들어 있는 것 같네
집을ᄎᆞᄌᆞ 드러가니 혼비빅손(魂飛魄散) 반(半)주검이
-집을 찾아 들어가니 혼비백산 반 주검이
언불출구[34](言不出口) 너머지니 더온구들 ᄋᆞᄅᆞᆫ목의
-아무 말 못하고 넘어지니 더운 구들 아랫목에
송장갓치 누엇ᄃᆞᄀᆞ 인ᄉᆞ수습(人事收拾) ᄒᆞ온후의
-송장 같이 누웠다가 산란한 정신을 가라앉힌 후에
두발끗흘 구버보니 열ᄀᆞ락이 간ᄃᆡ업닉
-두 발 끝을 굽어보니 열 개의 발가락이 간 곳 없네
간신됴리(艱辛調理) 싱명(生命)ᄒᆞ여 쇠게실려 도라오니
-간신이 몸조리로 목숨을 부지하여 소에게 실려 돌아오니

---

29) 이깔나무: 전나무과의 낙엽, 침엽교목. 깊은 산・고원에서 남
30) 발원: 소원을 빌다
31) 사망: 장사에서 이익을 많이 보는 운수
32) ᄒᆞ마: 이미, 벌써
33) 지사위한: 죽을 때까지 자기의 의견을 주장해 나아감. 여기서는 죽기살기로 나아간다는 의미
34) 언불출구: 말로써 나타내지 못함

팔십당연(八十當然) 우리노모(老母) 마됴ᄂᆞ와 일던ᄆᆞᆯᄉᆞᆷ

-팔십 되신 우리 노모 마중 나와 하시던 말씀

ᄉᆞᄅᆞ왓ᄃᆞ 닉ᄌᆞ식아 ᄉᆞ망업시 도라온들

-살아왔다 내 자식아 사망 없이 돌아온들

모ᄃᆞᆫ신녁[35](身役) 걱뎡ᄒᆞ랴 전토가장[36](田土家藏) 진ᄆᆡ(盡賣)ᄒᆞ여

-모든 신역 걱정할 소냐 논밭과 세간살림 모두 팔아

ᄉᆞ십뉵양(四十六兩) 돈ᄀᆞ디고 ᄑᆞ긔소[37](疤記所) ᄎᆞᄌᆞ가니

-사십 육양 돈 가지고 파기소 찾아가니

듕군ᄑᆞ툥[38](中軍把摠) 호령(號令)ᄒᆞ되 우리ᄉᆞ도(使道) 분부닉(分付內)의

-중군파총 호령하되 우리사또 분부내에

각툐군[39](各哨軍)의 뎨신역(諸身役)을 돈피(獤皮)외예 ᄇᆞᆺ디ᄆᆞᆯ라

-각 초군의 모든 신역을 담비가죽 외에는 받지마라

관령녀ᄎᆞ(官令如此) 디엄(至嚴)ᄒᆞ니 ᄒᆞ릴업서 퇴ᄒᆞ놋ᄃᆞ

-관가의 명령이 이와 같이 매우 엄하니 할 수 없이 물러나는구나

돈ᄀᆞ디고 물너ᄂᆞ와 원뎡[40](原情)디어 발괄[41]ᄒᆞ니

-돈 가지고 물러 나와 사정할 것을 지어서 하소연하니

물위번소[42](勿謂煩訴) 뎨ᄉᆞ[43](題辭)ᄒᆞ고 군노[44]댱교(軍奴將校) 차ᄉᆞ[45](差使)노아

-번잡한 소송이나 판결에 이르지 말라 하고 군노장교 파견하여

셩화(星火)ᄀᆞᆺ티 지촉ᄒᆞ니 노부모(老父母)의 원힝치댱[46](遠行治裝)

-다급히 재촉하니 노부모의 원행치장

팔승[47](八升)네필[48](匹)두엇더니 팔양돈을 비러ᄇᆞᆺ고

-팔 승 네 필 두었더니 팔 양돈을 빌어서 받고

파라다가 치와니니 오십녀냥(五十餘兩) 되거고야

-팔아다가 채워내니 오십여 냥 되겠구나

ᄉᆞᆷ슈각딘[49](三水各鎭) 두로도라 니십뉵댱[50](二十六張) 돈피(獤皮)ᄉᆞ니

---

35) 신녁: 다른 부분의 신역과 동일한 뜻, 단 원본에 '신녁'으로 나와있어 이렇게 표기함
36) 전토가장: 논밭과 세간 살림
37) 파기소: 병정・죄인 등의 몸을 검사하여 그 특징을 적은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곳
38) 중군: 조선시대 각 군영의 대장
파총: 각 군영의 종 4품 무관 벼슬
39) 초군: 군대 편제의 하나. 하나의 哨는 약 100명

40) 원정: 사정을 하소연 함
41) 발괄: 관아(官衙)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을 글이나 말로 하소연함.
42) 번소: 복잡한 소송
43) 제사: 관에서 백성이 제출한 소장. 관의 판결
44) 군노: 군아에 속한 종(현재의 사병에 해당)
45) 차사: 중요한 임무를 위해 파견하는 임시직
46) 원행치장: 먼길을 가기 위해 행장을 차림
47) 승: 피륙의 날을 세는 단위
48) 필: 정한 길이를 가진 피륙의 단위
49) 삼수각진: 여러군데
50) 장(張): 얇은 물건을 세는 단위

-삼수각진 두루 돌아 이십 육 장 담비가죽 사니

십여일(十餘日) 쟝근[51](將近)이라 셩화(星火)ᄀᆞ틋 관ᄀᆞ분부(官家分付)

-십 여 일이 가까이 왔네 성화같은 관가분부에

ᄎᆞ디[52](次知)ᄌᆞᄇᆞ ᄀᆞ도왓니 불상ᄒᆞᆯᄉᆞ 병(病)든뎌ᄂᆞᆫ

-아내를 잡아 가두었네 불쌍하다 병든 아내는

영오[53]듕(囹圄中)의 더디여셔 결항치ᄉᆞ[54](結項致死)ᄒᆞ단말ᄀᆞ

-감옥 안에 갇히어서 목을 매어 죽었단 말인가

닉집문뎐(門前) 도라드니 어미불너 우ᄂᆞᆫ소리

-내 집 문 앞 돌아드니 어미 불러 우는소리

구텬[55](九天)의 ᄉᆞ못ᄒᆞ고 의디업ᄉᆞᆫ 노부모(老父母)ᄂᆞᆫ

-구천에 사무치고 의지 없는 노부모는

불셩인ᄉᆞ[56](不省人事) 누어시니 긔뎔(氣絶)ᄒᆞ온 ᄐᆞ시로ᄃᆞ

-인사불성 누웠으니 기절한 탓이로다

여러신역(身役) 밧친후의 시체(屍體)ᄎᆞᄌᆞ 장ᄉᆞᄒᆞ고

-여러 신역 바친 후에 시체 찾아 장사지내고

ᄉᆞ묘(祠廟)뫼서 ᄯᅳ희뭇고 ᄋᆡ끈토록 통곡(痛哭)ᄒᆞ니

-사묘 모셔 땅에 묻고 애끓도록 통곡하니

無知微物(무지미물) 뭇됴(鳥) 雀(작)이 저도ᄯᅩ혼 셜니운다

-무지미물 뭇 참새가 저도 또한 슬피 운다

막즁변디(邊地) 우리인ᄉᆡᆼ(人生) 나ᄅᆞ빅셩(百姓) 되어나서

-변방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 나라의 백성 되어서

군ᄉᆞ(軍士)슬ᄐᆞ 도망(逃亡)ᄒᆞ면 화외민[57](化外民)이 되려니와

-군사되기 싫다고 도망하면 화외민이 되려나와

ᄒᆞᆫ몸의 여러신역(身役) 무ᄃᆞ가 ᄒᆞᆯ세업서

-한몸의 여러 신역 물다가 할 새 없어

ᄯᅩ 금년니 도ᄅᆞ오니 유리무뎡[58](流離無定) ᄒᆞ노ᄆᆡ라

-또 금년이 돌아오니 정할 곳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이라

나라님긔 알외ᄌᆞ니 구듕쳔문[59](九重天門) 머러잇고

-나라님께 아뢰자니 아홉 겹의 대궐문은 멀어 있고

뇨순(堯舜)갓틋 우리□[60]셩쥬[61](聖主) 일월(日月)갓티 발그신들

---

51) 장근: 때가 가깝게 됨을 표시하는 말
52) 차지: 주인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는 하인. 여기서는 주인공의 부인을 의미
53) 영어(囹圄): 감옥
54) 결항치사: 목을 매어 죽음
55) 구천: 가장 높은 하늘. 하늘을 아홉 방위로 나눈 것을 일컬음
56) 불성인사: 정신을 잃고 의식을 모름(人事不省)
57) 화외민: 교화가 미치지 못하는 백성
58) 유리무정: 정한 곳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님
59) 구중천문: 아홉 겹의 대궐문.
60) “우리” 와 “성주”가 원문에서 공간을 띄어놓고 있는데 이는 임금을 나타내는 한자어가 나오면 임금을 존대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.
61) 성주: 덕이 아주 뛰어난 어진 임금(聖君)

-요순임금 같은 우리 성군 해와 달같이 밝으신들

불沾(첨)셩화(聖化) 이극변(極邊)의 복분[62]ᄒᆞ(覆盆下)라 빗쵤소냐

-임금의 교화가 더하지 못하는 이 극한 변방의 엎은 동이 아래에 있으니 비칠쏘냐

그ᄃᆡ쏘ᄒᆞᆫ ᄂᆡ말듯소 ᄐᆞ관소식(他官消息) 드러보게

-그대 또한 내말 들어보소 타관소식 들어보게

북텽부사(北靑府使) 뉘실런고 성명(姓名)은 좀간이저있ᄂᆡ

-북청부사 누구인고 성명은 잠깐 잊고 있네

허다군뎡(許多軍丁) 안보(安保)ᄒᆞ고 ᄇᆡᆨ골도망(白骨逃亡) 해원(解寃)일릐[63]

-매우 많은 군정 편히 보장하고 죽어 없어진 이의 원한을 풀어주네

각ᄃᆡ초관(各隊哨官) 제신역(諸身役)을 ᄃᆡ소민호(大小民戶) 분징(分徵)ᄒᆞ니

-각 부대 초관 여러 신역을 크고 작은 민가에서 나누어 부담하니

만흐면 닷돈푼수 저그며ᄂᆞᆫ 서돈이라

-많으면 닷 돈 푼 정도, 적으면 세 돈이라

인읍ᄇᆡᆨ셩(隣邑百姓) 이말듯고 남부녀ᄃᆡ[64](男負女戴) 모다드니

-이웃 마을 사람 이말 듣고 남부여대 모여드니

군뎡허오[65](軍丁虛伍) 업서지고 민호졈졈(民戶漸漸) ᄂᆞ러간다

-군정허오 없어지고 민가가 점점 늘어간다

나도쏘ᄒᆞᆫ 이말듯고 우리고을 군졍신역(軍丁身役)

-나도 또한 이 말 듣고 우리고을 군정신역

북청일례[66](北靑一例) ᄒᆞ여디라 영문의숑[67](營門議送) 졍(呈)ᄐᆞᆫ말가

-북청의 예를 들어 관아에 상소를 바쳤으니

본읍(本邑)맛겨 뎨ᄉᆞ(題辭)맛다 본관ᄋᆞ(本官衙)의 붓치온즉

-본 고을에 제사를 맡아 본 관아에 부치 온즉

불문시비(不問是非) 올여ᄆᆡ고 형문[68]일ᄎᆞ(刑問一次)맛ᄃᆞᆫ말ᄀᆞ

-옳고 그름은 묻지 않고 올려서 매어 놓고 곤장 한번 맞는단 말인가

쳔신만고(千辛萬苦) 노녀ᄂᆞ셔[69] 고향싱ᄋᆡ(故鄕生涯)다ᄲᅧᆯ치고

-천신만고 끝에 풀려나서 고향생애 다 떨치고

닌리친구(隣里親舊) ᄒᆞ직업시 부노휴유(扶老携幼) ᄌᆞ야반(子夜半)의

-이웃 친구에게 하직인사 없이 노부모 잡고 어린아이 끌고 밤중에

후틔령[70]노(後峙嶺路) ᄇᆡᆺ겨두고 금챵령(金昌嶺)을 허위너머[71]

---

62) 복분: 엎은 동이. 엎어둔 동이는 속이 어둡다는 뜻으로 '근거 없는 죄를 뒤집어씀'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

63) 원한을 풀어주네

64) 남부여대: 남자는 지고, 여자는 이고 감. 곧 가난한 사람이 떠돌아다니면서 삶을 이르는 말

65) 여기서 '伍'는 5명 단위의 대오를 의미하는 것- '군정허오'는 하나의 伍에 5명 전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 비어있음을 의미

66) 일례: 한가지 예.

67) 영문: 감사가 직무를 보는 관아
의송: 백성이 고을 원에게 패소하고 관찰사에게 상소하던 일

68) 형문: 刑杖으로 죄인을 때림

69) 노녀ᄂᆞ셔: 놓여나서

70) 후치령: 함남 북청군(현 덕성군)과 풍산군(현 양강 김형권군)과의 경계에 있는 고개. 높이

-후치령길 비켜두고 금창령을 허우적 애를 쓰며 넘어

단천(端川)짜을 바라지나 셩딕손(星岱山)을 너머서면

-단천 땅을 바로 지나 성대산을 넘어서면

북쳥(北靑)짜이 긔아닌가 거처호부[72](居處好否) 다뗠치고

-북청 땅이 거기 아닌가 좋고 나쁜 거처 다 떨치고

모든가속 안보하고 신역(身役)업손 군ᄉᆞ(軍士)되세

-모든 집안살림 편히 하고 신역 없는 군사 되세

닉곳신역(身役) 이러ᄒᆞ면 이친기묘[73](離親棄墓) ᄒᆞ올소냐

-네 사는 곳의 군역이 이러하면 이친기묘 하겠느냐

비닉이다 비닉이다 하나님께 비닉이다

-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

충군이민[74](忠君愛民) 북쳥(北靑)원님 우리고을 빌이시면

-충군애민 북청원님 우리고을 들리시면

군뎡도탄(軍丁塗炭) 그려다가 헌폐상(軒陛上)의 올이리라

-군정의 도탄함을 그려다가 헌폐위에 올리리라

그딕쏘ᄒᆞᆫ 명연(明年)잇쩌 쳐ᄌᆞ동싱(妻子同生) 거ᄂᆞ리고

-그대 또한 내년 이때 처자동생 거느리고

이령노(嶺路)로 잡아들지 긋쩌닉말 찌치리라

-이 고갯길로 접어들 때 그 때 내말 깨치리라

닉심듕(心中)의 잇날말숨 횡설수설(橫說竪說) ᄒᆞ려ᄒᆞ면

-내 심중에 있는 말 횡설수설 하려하면

내일(來日)이쩌 다지나도 반(半)나마 모자라리

-내일 이 때 다 지나도 반정도 모자라니

일모총총[75](日暮怱怱) 갈길머니 하직ᄒᆞ고 가노ᄆᆡ라

-해 저물어 바삐 갈 길 머니 하직하고 가노라

右靑城公莅北靑時甲山民所作謌[76]

(오른쪽은 청성공(성대중)이 북청부사 재직 때에 갑산 고을의 백성이 지은 것이다.)

1,335m. 함경산맥의 중앙에 있으며 예로부터 북청(北靑)과 풍산(豊山)·중평장(仲坪場)·혜산(惠山) 등을 연결하는 교통의 대간선 이었다.

71) 허위너머: 높은 곳을 허우적거리며 무척 애를 써서 넘음

72) 거처호부: 좋고 나쁜 거처

73) 이친기묘: 부모와 헤어지고 묘지를 버림

74) 충군애민: 임금에 충성하고 백성을 사랑함

75) 총총: 바쁜 모양

76) 창작연대를 1792년으로 추정- 고순희 〈19세기 현실비판가사 연구〉,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, 1990. pp.14~15. 靑城은 成大中(1732~1812)이며 그는 1792년에 북 정부사로 재직하다가 이듬해에 위원군수로 갔다고 한다.

※참고문헌

김문기, 『서민가사연구』(형설출판사, 1983)
조동일, 『한국문학통사』3 (지식산업사, 1994)
임기중, 『역대가사문학전집』6 (동서문화원, 1987)
김일렬, 『한국고전시가 작품론』2 (집문당, 1992)
이상보, 『18세기 가사전집』 (민속원, 1991)